

나프타 소비증가율 여전히 “최고”

석유협회, 1월 수요 6.8% 증가 ... 석유제품 수출도 10억달러 육박

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석유제품 수출이 2005년 들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.

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2005년 1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9억450만달러로 2004년 1월 6억4000만달러에 비해 41.2% 증가했다.

1월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2004년 1780만배럴에서 2005년 2020만배럴로 13.5% 늘었다.

석유협회는 수출물량보다 수출금액 증가폭이 큰 것은 고유가로 수출단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

또 2005년 대부분 유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,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유의 수출증가를 제외하면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휘발유와 등유, 경유 등의 수출확대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.

1월 석유제품 수출량은 휘발유가 전년동월대비 20.6%, 경유 32.8%, 항공유 118.8% 증가했으며, 수출액도 휘발유 30.3%, 경유 62.2%, 항공유 185.9% 늘어났다.

국내 석유제품 소비량도 1월 7219만배럴로 1.8% 증가했다. 소비증가율은 나프타 6.8%, 항공유 42.5%로 플러스 증가한 반면 휘발유(-1.0%)와 등유(-15.6%), 경유(-4.8%)는 감소세가 이어졌다.

<화학저널 2005/03/04>